

더민주 비대위 김종인 비례 14번으로 조정

최종후보 35명 중 20%인 7명 전략공천·순번 확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대표 번호를 기존의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비대위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아울러 기존 A그룹(1~10번)·B그룹(22~20번)·C그룹(21번 이후)으로 분류했던 순위 투표의 칸막이를 허물기로 했다.

비대위는 당초의 명단을 분석, 최종 후보를 35명으로 추렸다. '아들 방산업체 취업

논란이 있는 박종현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비대위는 또 35명을 기준으로 전체의 20%인 7명을 전략공천, 순번을 확정했다. 지역논란이 일었던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와 교수는 비례 1번을 유지하고, 김성수 대변인이 10번, 이수혁 전 6지회답 대사가 12번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날 김종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김 대표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 대표가 비대위안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실프공천' 논란으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21일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그 따위로 대접하는 그런 정당에 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한 수정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가 자기들(더민주)한테 보수를 받고 일하는거야, 뭘하는거야"라며 "말을 해도 절제 있는 얘기를 해야지"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김 대표는 "내가 비례대표에 연연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며 "당을 조금이라도 추스려 수렴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가 의원직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이후에 내가 던져버리고 나오면 이 당이 제대로 갈 것 같으냐"며 "저 사람들이 중앙위에서 떠드는 식의 그런 광경을 50년 전에도 봤는데 그레가 지고는 당이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사람들이 왜 비대위를 만들었느냐" 자기가 남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니가 비대위를 만들었다"며 "그러면 권한을 줘야 비대위가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싫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

4.13 선거 RUN·RUN·RUN

김광수 예비후보, "초심 잃지 않고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는 "전주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받아들여 항상 겸허한 자세로 총선 마지막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사사로운 조직에 의존하거나 고질적 병폐인 패거리 중심의 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명령과 같은 것"이라며 "평소의 신념대로 오직 정책과 소신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4선의 지방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정치의 한계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중앙무대로 진출하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방정치가 충분히 단련된 관료와 노하우를 싣는 발취해 빼앗긴 지방의 몫을 되찾는데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유종근 예비후보, 전주권 공항 건설 공약

무소속 유종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는 전주권공항과 호남고속철도 서전주역사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C기반 확충을 위한 2가지 공약을 내놨다.

그는 "도지사 시절 역점사업으로 시작해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고 부지를 확보했지만, 퇴임 이후 좌초되고만 전주권공항 건설사업이 되실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전주와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만금공항을 백지화하고, 김제에 전주권공항 건설계획을 되실거내 새만금공항을 대체해야 한다"라며 "이는 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서전주역사 신설도 제시했다.



/이성주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강봉균 선대위원장 수락 환영한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21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수락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강 전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수락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봉균 전 장관은 "전북은 지난 30여년 동안 야당득주로 지역개발이 뒤쳐진 만큼, 여당후보가 당선에 전북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군산출신인 강 전 장관은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과 3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호남지역 경선 결과 이의 제기 '빛발'

김원종 후보측 "밀실공천 하지마라" 항의 경선 중단 서정성 후보 측개표 촉구 등

국민의당은 21일 4·13총선을 위한 호남지역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는 경선 결과에 항의하는 각 후보자 측의 반발로 5분 가량 지연됐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경선에 나섰던 김원종 후보 측 지지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밀실공천 하지마라'며 항의, 당직자들과 몸싸움이 일면서 최고위 시작이 늦어진 것이다.

이들은 경선 통과자인 이용호 후보가 가

거 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경력에 있어 정치신인 가정 20%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 앞에는 또 전날 경선이 중단된 광주 등남갑에 출마한 서정성 후보 측 지지자들이 몰려 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날 속의배심원단 경선으로 이뤄진 등남갑 경선에서는 장병완 의원이 배심원 172명 중 167명이 투표한 가운데 69표(39.7%)를 획득, 서정성 후보(64표·36.8%)와 결선 투표가 결정됐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못하

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득표기준은 조정백분율(39.7%)가 아닌 득표수 기준 백분율(41.3%)을 적용해야 한다며 2차 결선투표에 대한 개표중단을 요구했고, 개표가 중단됐다. 이날 최고위에서 개표 재개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은 회의 후 당직자들의 보호 속에 간신히 회의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성주기자

새누리, 강봉균 선대위원장 영입 확정

새누리당은 21일 '김대중(DJ) 정부' 장관 출신 강봉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대위원장장으로 영입키로 확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28일)쯤 취임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 위원장 영입 확정 소식을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강 장관 일정이 어떻게

모르겠다"며 "오늘 밤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였던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강 전 의원 카드로 중도층 표심을 자극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전 의원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후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주도한 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기자

"더민주 비례선정 소수계층배려"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정세균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비례대표 논란과 관련, 21일 "당헌에서 명시한대로 소수계층과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병석·원혜영·유인태·이석현·정세균·추기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당헌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수계층과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가 불과 28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시간이 없다"며 "중앙위도 오늘 오후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마쳐놓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야권연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며 "최소한 가능한 지역과 가능한 정당을 대상으로 연대의 불씨를 살려 무능하고 독선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김호서 예비후보, "전북 지원 확대 더욱 심화"

국민의당 김호서 예비후보는 21일 "수출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 정부 정책 은행의 전북지역의 경우 2015년 수출 지원총액이 1%도 안 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노골적인 전북 확대대면서 "수출지원 부진은 전북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박근혜정부의 지역차별을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관세청 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 시·도 수출기업에 지원한 대출총액은 모두 54조원이었다. 이중 수도권은 26조(48%), 영남권은 26조(48%)로 합계가 92%에 달했다. 전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작 0.7%인 3780억원만 지원받았다. 영남권에 비해 눈에 띄게 저조하다. 매출 규모를 감안하여도 영·호남지역의 지원 편차가 너무 크고,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호남과 전북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확대로 지역 경제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정영수 기자

이훈석 예비후보,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

더불어민주당 이훈석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 갑)는 최근 국민참여 경선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고, 보내주신 애정과 지지를 가슴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저를 믿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변화하는 익산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밀린 후 익산 읍에 전략공천된 한병도 예비후보와 관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익산을 위한 진심은 시민들께도 와 닿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분들의 뜻까지 모두 겸허히 제가 안고 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자부타가 밀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훈석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김영일 전 경무관 국민의당 이한수 전 익산시장 등과 본선경쟁에 나선다.



/익산=장영원 기자

강동원 예비후보, 지역민들과 소통 시간 가져

무소속 강동원 예비후보는 21일 '한국전북지역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등을 방문하며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노인과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이들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임·순·남 지역의 중대없는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소속해 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헌을 물론 지지자와 일반유권자들도 아리둥절하게 만들 정도로 도무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야당인지, 여당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당원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야당 역사상 역대 이런 적은 없었고, 처음본다고 혀를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수 기자

김종희 예비후보, 김제·부안 선거구 공천 확정

국민의당이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 발표한 김제시·부안군 선거구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종희 후보가 패인이 넘는 득표(54.9%)로 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29.30.0%)를 보이며 공천이 확정됐다.

김종희 후보는 "이번 여론 조사의 결과는 구태정치 청산하고 지역의 뼈아픈 현실을 제대로 바꿔달라는 유권자들의 처절한 외침"이라며, "그 변화의 열망을 받아들여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허세까지만 해도 경쟁자였던 같은 당 예비후보들도 이제는 동반자"라며 "그들이 제시한 참신한 공약들도 수용하여 국민의당 대표주자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 동안 지역별 각자도생(各自圖生)적으로 진행되어 체질될 수밖에 없었던 새만금 개발을 앞으로는 전북의 국민의당 후보들이 새만금정책연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박노태 기자

김만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만균 예비후보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고창터미널 4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 개소식을 갖는다. 고창 출신으로 고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4년 전 19대 총선에서 고창군 부안군 선거구에 출마해 상당한 득표력을 보이며 선전한 바 있다.

이번 20대 총선은 정읍시와 고창군이 새롭게 통합되면서 벌써부터 정읍·고창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 예비후보는 "2월 1일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선거활동에 돌입했으나 겨우 선거 한 달여를 남겨두고 선거구가 개편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행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출마도 새인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나서는 만큼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오은미 예비후보, "농민들 밥상 지켜내겠다"

오은미 예비후보는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 농민들의 밥상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가소득 보장, 농민수당 신설하여 중소농 보호, 농기계, 농자재 원가공급 실시하여 가격안정 보장, 남북농업교류 보장하고 남북 공동 식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오 후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여당, 박근혜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멍석판인 야당, 이런 정부와 정치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단 하루도 맘 편히 살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다"고 여야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은미 후보는 전북도의회 8·9대 의원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전 전북도당 위원장 민주당 전복연대 공동대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여성 농민 운동가로 알려졌다.



/이성주 기자

정동영 예비후보, "법원 이전부지 디지털도서관 건립"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혁신동 법원 이전부지에 디지털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각종 멀티태스킹 작업, IT작업, 세미나, 영화 관람,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며 "구 시가지에 있던 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도심이 공동화하고 있다. 이를 창조적으로 재설계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식정보가 개인의 발전과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지식 정보를 한 곳에 집적해 살아있는 정보로 활용,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